

고등학생으로 살아남기

시작되어버린 고등학교 생활

나에게도 영영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되었다. 입학 후 3월 모의고사를 안 봐서 전체적으로 나의 수준이 어느정도 인줄 몰랐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그래서 오늘은 진안에서 느끼는 고등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알아볼려고 한다. 나는 공부를 아예 안하는 타입은 아니였다. 그래도 수업시간에도 열심히 들었고 점수도 어느정도 잘 나왔다. 하지만 여기서 첫 문제가 생긴다. 먼저 너무 심한 진안중학교, 진안여자중학교와 나머지 학교의 수준 차이이다.

시골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학교들

진안군은 읍내에 있는 진안중학교, 진안여자중학교를 비롯하여 면단위에 있는 중학교들로 구성되어있다. 나 또한 면 단위인 마령중학교를 재학했었는데, 진안중과 진안여자

중학교가 타 면 단위 학교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반박할 여지가 없다. 여러 차이점들이 있겠지만, 우선 분위기가 다르다. 다른 중학교는 애들이 적기 때문에 “내가 왜 공부를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선생님들도 애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니 문제를 상대적으로 쉽게 내고 애들은 조금만 공부해도 점수가 나오니 꼭 공부를 하지 않는다.

물론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분위기이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점수가 잘 나와도 자신만만하게 진안제일고등학교 등 인문계를 오면 대부분 따라가지를 못한다. 자기는 한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는 중학교 때 아무리 안해도 생각도 못한 점수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에 반면 진안중학교, 진안여자중학교는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기 때문에 대략 예상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내가 우리 학년에서 몇 등을 했으니 고등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하겠네? 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내 생각은 간단하면서 어렵다. 우선 내 생각은 진안중학교, 진안여자중학교를 제외한 학교들에게도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줘야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인식 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한 것 같다. 예전에는 중학교 때도 연합고사를 봐서 그 수준을 가늠했지만, 현재는 아쉽게도 그런 제도가 존재하지 않다.

걱정하는 학생들

첫 번째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내 점수로 알았다. 이런 문제점이 느낀 후 다음으로 느낀 문제는 무엇이였을까? 바로 다음 시험은 잘 봐야 한다는 중압감이다. 물론 인문계를 지원한 고등학생이라면 모두 “아...이 성적이면 어디를 갈 수 있지..?” 같은 생각은 다 한 번씩 해 봤을 것이다. 거의 내신으로 가는 진안 특성상 내가 어디 정도로 갈 수 있는지는 쉽게 계산 할 수 있다. 첫 시험을 망친 나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 진로에서 필요한 대학교는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여서 암울하다. 물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지”,

“다음에 잘 보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음 시험도 망치면 어떡하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건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 제일 고조되는 고등학교 3학년의 수험생 스트레스는 익히 들어보았을 것이다. 10대 때 인생의 대부분이 결정되는 것이다 보니 그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다. 혹자는 “에이 그런거 안해도 돼”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사회에서 요구하는 스펙에서 좋은 학교는 기본이다. 그러다 보니 과다 경쟁이 생기고, 입시 비리같은 사건도 터지기도 한다.

지금처럼 수학유형별로 외우기, 영어 본문 외워서 시험보는 것 같은 문제는 몇 년후에 해결 될 가능성도 보이는데 바로 2025년부터 시작하는 고교학점제 때문이다. 미국처럼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듣고 정해진 학점만 맞추면 졸업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쓸모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걸 공부한 애들하고 수학유형을 외워서 공부했던 애들하고 사회에 나가면 경쟁이 될 것 같지 않아 걱정이 된다.

빈현옥(진안제일고 1)

자연환경 지키며 사랑하기

Environment, 환경이라는 말은 여러가지 의미를 아우르는 애매모호한 단어이다.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를 둘러싼 문화들과 생활양식 모든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지리를 의미할 수도 있다. 프로그래머를 지망했던 중학교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컴퓨터에서도 환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내가 지금 글을 쓰면서 보고있는 태블릿의 화면, 창문을 열면 보이는 풍경과 느껴지는 공기 또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경이라고 하면 자연환경을 의미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 3조 2항에서는 자연환경을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라고 정의하고있다. 모든 인간은 자연환경 위에서 태어났고, 자연환경이 없으면 숨을 쉴 수 없고 살아가갈 수 없기에, 자연환경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도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무리 지구에서 가장 영리한 동물이고 현재의 수많은 과학기술과 문명들의 아버지더라도 인간은 조금 어리석은 듯 하다. 15억 대의 자동차들은 미친듯이 매연을 뿜어내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폭포를 보는 듯 하다. 사라져버린 봄과 가을, 최근 매년 최고온도를 갱신해내는 여름의 더위, 그리고 지금도 겪고있는 갑작스러운 겨울의 추위는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래서는 절대 안된다. 이 신문을 읽는 독자들이라도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이 기사를 작성하는 이유이다.

대한민국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오염을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부 다 알아볼 수는 없고 딱 3가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그리고 토양오염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 대기오염은 공기 속에 오염물질이 포함되는 현상을 말한다. 인류는 고작 2세기 동안 산업을 훼손하고 공장을 지어나가면서 지구환경을 크게 뒤집어 놓았고, 그 대가로 대기오염을 얻게 되었다. 1860년부터 현재까지 인류가 대기에 방출한 탄소는 무려 1850억 톤이고, 연간 방출량은 점점 늘어나 50억 톤을 1년마다 배출하고 있다. 이런식의 대기오염이 점점 심화되다 보면 전문가들은 지구의 평균기온이 1.5~4.5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아직 감이 안잡히는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얼음이 지구를 뒤 덮고있던 빙하 시대에도 오늘날의 평균기온보다 불과 5도 낮았다. 앞서 적었던 봄과 가을의 소실, 더욱 강해진 여름과 빨라진 겨울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이고, 지구온난화는 대기오염의 영향이다. 매년 우리가 겪고 있는 미세먼지와 황사 또한 대기오염의 영향이다.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때문에 예기치 않게 문을 닫아버린 공장들 덕에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몇년 전만 해도 깨끗한 공기는 커녕 저 멀리 있는 건물들이 흐려져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이러한 대기오염을 억제하는 것은 대기오염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과 교통을 개선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공장에는 오염물질들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집진장치를 설치하고, 매연을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들을 제한시킬 수 있다. 황사나 미세먼지의 10~40% 정도는 중국같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많다고 한다. 외교 또한 역제의 중요 포인트이다. 사람들은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배출량을 줄이고, 마스크를 쓰며 개인위생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몸을 지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인간은 3일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망한다. 그래서 수질오염은 더욱 더 인간 뿐만이 아닌 모든 생명체에게 치명적이다. 전 세계 인구 중에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섭취할 수 있는 인구는 1% 남짓이며, 물을 정수시켜서 마실 수 있게 만들더라도 10%를 겨우 넘는다. 또한 오염된 물은 토지에 축적되어 후술할 토지오염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래저래 쓰이는 곳이 많은 물이라 수질오염이 피해를 주는 범위는 매우 넓다. 몇가지 예시만 들어보면 호수나 강, 바다가 오염되면 그 안에 포함된 생명체들도 전부 몰살이다.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들은 생명체들 뿐만 아니라 선박의 프로펠러 등에 끼어서 고장을 유발하며, 바다에 플랑크톤이 대량 발생하여 일어나는 적조현상과 그렇게 불어난 플랑크톤이 산소를 다 소비하여 일어나는 청조현상은 어업에 피해를 가져온다. 그 외에도 원유, 산성비, 폐수 등등... 수질오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 수질오염을 억제하는 방법은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인 공장이나 사육장 등에 폐수 억제장치를 설치하고, 쓰레기 또한 당연히 제대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폐수의 무단 방류를 감시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하며, 개인이 음식물을 남기지 않거나 비누로 머리감기, 세제양을 적당히 넣는 것과 같은 사소한 실천도 중요하다.

오염물질이 토양으로 유입되어 토양의 자정 능력이 상실되는 현상을 토양오염이라

한다. 토양오염의 특징은 한번 오염되면 복구가 힘들고 매우 불규칙하게 확산된다는 점이다. 오염물질이 잔류하여 수권이나 기원으로 이동하여 오염시키는 경우도 있다. 한 방고등학교에서 농업을 배우는 필자는 토양오염에 대한 내용도 자연스레 알게 되었다. 토양 오염이 일어난 땅에서 자란 농산물은 인간에게 다시 돌아와 해를 끼치게되며, 대표적인 가축의 전염병인 구제역 또한 토양오염의 종류로 볼 수 있다. 가축의 발굽에 물집과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하는 구제역은 토양을 매개로 하여 전염된다. 해결책은 가축들을 전부 생매장하는 것인데, 이 경우 가축들을 매몰시켰을 때 나오는 오염물질이 지하수나 하천을 오염시킨다면 골치가 더욱 아파진다. 농약이나 화학 비료의 과도한 사용도 토양 오염을 유발한다. 이렇게 토양오염이 일어나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 현상을 농업에서는 염류 장애라 한다. 필자가 잘 아는 농업을 연관시켜 토양 오염을 설명하였지만 일회용 쓰레기들과 방사능 등의 사례들도 토양 오염과 깊은 관련이 있다. 토양오염은 다른 오염보다 회복이 유난히 어렵다. 토양오염을 해결하려면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농업에서는 농약과 화학 비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

인류는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에서 자라며 자연에서 죽는다. 자연이 없다면 발전도 없고 인류도 없을 것이기에 우리는 더욱 더 자연에 대해 알고 지켜야 한다. 또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며,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서 더 나은 지구를 만들어 낼 수 있을것이다. 이 글을 읽고 단 한 명이라도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

이한옥(한방고 1)